

애플 '앱 추적 투명성' 도입... 이용자 '만족' vs 광고주 '불만'

지난 5월 애플 iOS가 '앱 추적 투명성' 업데이트를 진행한 뒤 이용자와 광고주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됐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반면, 광고주들은 맞춤형 광고 대부분을 하지 못하게 돼 애플의 업데이트에 반발하고 있다.

앱 추적 투명성이란 애플이 iOS 14.5부터 도입한 정책이다. 맞춤형 광고를 허용할지, 차단할지 여부를 iOS 및 iPadOS 기기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시장서 앱추적 허용사례 4% 불과
이번 iOS 업데이트에 대해 이용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업데이트 실시 후 미국의 IT매체 애플인사이드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OS14.5에서 앱 추적을 허용한 이용자의 비율은 전체의 4%에 불과했다. 나머지 96%의 이용자들은 앱 추적을 거부했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5월 iOS 업데이트 이후 새로운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긍정'
광고주, 맞춤형 광고 못해 '반발'
페북 "모든 이용자 억제" 비판
안드로이드에 광고 몰려... 비용↑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앱을 처음 사용할 때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앱추적 기능을 허용할 것이냐는 문구다. 이에 허용하지 않음을 누르게 되면 광고 플랫폼 기업에 개인정보가 넘어가지 않게 된다. 이번 업데이트로 이용자들은 자기정보 이용에 대한 '선택권'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다.

부천에 사는 대학생 김모씨는 "그동안 맞춤형 광고가 신기하면서도 불안했는데 이번 iOS 업데이트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보안성 때문이라도 앞으로는 애플 폰을 계속 사용할 것

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기업에 피해줄 것"

반면, 광고주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가 앱 추적을 허용하지 않으면 광고를 제공하는 앱들은 더 이상 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개인에 최적화된 광고를 송출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고객 맞춤형으로 상품을 홍보해야 하는 광고주들과 지금까지 개인화된 광고를 세일즈 포인트로 삼아왔던 광고 사업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 상황을 맞은 것이다. 대표적

으로 광고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이번 정책이 수백만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광고 지원 서비스는 인터넷 성장과 활력에 필수적"이라며 "애플은 모든 사람들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다시 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 광고비 30% ↑, '쿠키' 퇴출 연기
개인정보보호는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애플이 이번 업데이트 정책을 발표한 직후 구글도 곧바로 개인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담은 정보인 '쿠키'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의 개인정보보호 업데이트는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

오히려 애플이 '앱 추적 투명성' 업데이트를 시행한 이후 안드로이드는 광고비가 30%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구글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시행하는데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을 통한 쿠키 수집 중단 시점을 2023년 말로 늦추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또 구글은 애플처럼 개인정보 선택권을 완전히 이용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 개인별 기록을 저장하는 것이 아닌 비슷한 관심사별로 묶은 소집단에 대한 정보만을 수집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기술이다.

한편,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애플은 광고비를 잃게 됐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명성은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크레이그 페더리기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부사장은 앱 투명성 정책 시행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모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라며 "프라이버시는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강준혁 수습기자 junhyuk@metroseoul.co.kr

"유니콘 육성"... '디지코KT 오픈랩' 출범

KT, 관악S밸리에 오픈
총 7개층, 500평 규모
인프라·네트워킹 등 지원

KT가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관악S밸리'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디지코KT 오픈랩'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차세대 유니콘 육성에 나선다.

KT는 관악S밸리 조성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으로 '디지코 KT 오픈랩'을 출범시키고 스타트업 발굴·육성에 적극 나선다고 8일 밝혔다.

KT와 KB금융그룹은 관악S밸리를 스타트업 육성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디지코KT 오픈랩'과 'KB이노베이션 허브'를 한데 모아 '관악S밸리 스타트업센터'를 공동 개소했으며, 8일 진행된 개소식에는 KT 구현모 대표,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태호 국회의원,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참석했다.

관악S밸리는 지난해부터 KT가 관악구, 서울대학교, KB금융그룹 등과 함께 관악구 대학동 및 낙성대동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는 벤처창업 클러스터다. KT, 관악구, 서울대학교는 서울대 우수 인재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과 스타트업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호암로 관악S밸리 스타트업 센터에서 열린 '디지코KT 오픈랩(OPEN LAB)' 개소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이사, 오세정 서울대 총장,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윤정현 블루시그널 대표, 정태호 의원, 박준희 관악구청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손진영 기자 son@

어지는 자생적 창업 생태계 조성은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악S밸리 스타트업센터'는 총 7개층 500평 규모로 총 3개 기업이 시설을 공동 운영한다. 지상 2~4층은 '디지코KT 오픈랩', 지상5~6층은 '관악KB이노베이션 허브', 지하1층~지상1층은 공유오피스 스타트업 '마이워크스페이스'가 자리잡는다. 이들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입주 기업간 네트워킹, 공동 행사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디지코KT 오픈랩에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미래 성장기업 발굴 디지코 공모전'에 선발된 기업을 포함해 총 7개 기업이 1기로 입주한다.

KT는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코KT 오픈랩' 창업 공간 제공 뿐 아니라 AI·5G 테스트베드 및 클라우드 오픈랩 연계 등 KT가 보유한 창업 인프라를 제공, 투자 유치 및 네트워킹 기회, KT 사업연계 통한 서비스 출시 등 다각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네이버클라우드 지원 中, CSAP서 성과

상반기 6개기업 간편등급 획득

네이버클라우드의 'SaaS 보안인증 상담 지원 프로그램'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순항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국내 중소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aaS) 보안인증을 돕는 'SaaS 보안인증 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 상반기에 6개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SaaS 간편등급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

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CSAP를 필수로 획득해야 한다. CSAP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민간 클라우드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안정성을 검증해 이용자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다.

/강준혁 수습기자

현대중, ESG경영 정책 방향성 점검

ESG협의체 첫 회의... 계획 수립

현대중공업그룹이 '그룹 ESG(환경·사회·지배구조)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그룹 ESG경영의 체계적인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8일 서울 계동 현대빌딩에서 한국조선해양, 현대오일뱅크 등 11개 계열사 CSO(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들로 구성된 그룹 ESG협의체 회의를 열고, ESG경영 현황 점검 및 탄소중립 등을 위한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룹 ESG 비전 구축과 관련해 컨설팅을 진행해 온 자문기관의 1차 보고를 받고, 각 사 주요 ESG경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했다. 또 각 사별 ▲체계적인 환경 정보 공개 추진 방안 ▲탄소중립 실행 방안 ▲환경조직 강화 ▲협력사 ESG 강화 방안 ▲인턴

십 프로그램 도입 검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의 환경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추진 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평가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환경 정보 공개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다양한 실행 방안도 논의됐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생산에 활용하는 한편 스마트 야드 구축을 통한 생산 공정 최적화에 나설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디스플레이 사내교육에 '메타버스' 도입

신입사원 91% "교육효과 있어 만족"

LG디스플레이가 가상현실에서 신입사원을 교육하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해 신입사원을 교육한다고 8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합한 공간으로, 메타버스 교육장은 국내 4개 사업장을 구현한 메인 홀과 5개의 그룹홀, 25개의 팀홀로 이어지는 3단계 네트워크 공간으로 구성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0여명 신입사원을 메타버스 교육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동기들과 화상 소통과 릴레이 미션, 미니게임 등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재욱 기자 juk@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신입사원은 "코로나로 인해 동기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비록 가상공간이지만 동기들과 함께 교육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대학시절 들었던 온라인 수업과 달리 흥미롭게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교육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신입사원 91%가 메타버스 방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방식이 동기들간 네트워킹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채용하는 약 900여명의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도 총 8차수에 걸쳐 메타버스를 활용한 흥미롭고 몰입도 높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